

교육학술부 신설 등 협회 조직 시스템화 주력 협회 분위기 쇄신 통한 상호 친목 교두보 역할



임종웅

(사)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회장

(사)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는 2월 23일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임종웅 협회 상임이사를 만장일치 신임회장으로 추대했다. 현재 (주)INA 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과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및 대학원 강사로 재직 중인 임종웅 회장은 지난 1993년부터 1996년까지 패키지 디자인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협회의 분위기 쇄신과 회원들간의 단합을 기대하는 회원들의 뜻에 따라 회장으로 추대된 임종웅 회장을 만나, 향후 협회 운영 계획을 들어보았다.

“지난 1993년부터 4년간 협회 회장을 연임했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회장직을 수행한다는 것이 새로운 변화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협회에 대한 열정과 경험을 토대로 회원들 상호간 친목과 위상을 회복하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종웅 회장은 “좀 더 젊고 유능한 후배들이 협회를 이끌어 가야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 회원들의 성원에 밀려 협회장직을 수락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상호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교두보 역할에 중점을 두고 협회를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을 졸업한 임종웅 회장은 (주)농심 디자인본부에서 상무이사로 재직했으며 ‘대한민국 브랜드대상’ 공로훈장 산업포장과 ‘2002 Korea

Design Awards' 올해의 디자이너상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공로를 인정받으며 패키지도자 인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탄탄한 기반과 전통을 자랑해 온 한국패키지 디자인협회는 최근 협회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도가 예전같지 않아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질서 확립과 위상회복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고려해 임종용 회장은 패키지 디자인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확립하는 한편, 패키징 산업체와 연계한 사업을 모색, 디자이너와 패키징 산업체를 부각시켜 양 산업계의 영리와 권익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임 회장은 특히 협회 조직 운영이 시스템화 될 수 있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먼저, 교육학술부를 신설, 강화하여 기존의 교육 사업을 유지하되 세미나,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회원 참여율을 높이고, 기존에 운영해 오던 사업부분을 운영부로 일부 이관하고 현실적인 수익사업에 도움이 되는 모델을 개발해 운영자금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대외적 협회 위상 확립은 물론 패키지 디자인 분야와 산업체 법인사와의 협력으로 상호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에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디자인 산업의 중요성과는 달리, 사회적 인식과 대가가 따르지 못해 디자이너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히면서 “디자인을 통해 상품의 속성이 전달되고 소비자와의 교감을 느낄 때 디자이너로서의 보람을 갖게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상품의 색다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브랜드 컨셉이 디자인을 통해 잘 표현되고 추후 소비자에게 강하게 어필할 때 디자인의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는 그는 이런 보람으로 인해 어려운 업계 현실에서도 패키지도자 디자이너들은 제 위치에서 묵묵히 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종용 회장은 “그동안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는 패키지 디자인의 저변확대와 회원들의 권익 옹호를 위한 여러 사업과 행사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확보에는 어려움을 느껴왔다”고 밝히면서 “국내에서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행사를 운영하는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대학생들을 위한 썸머캠프의 경우, 프로 디자이너와의 워크숍을 통해 실질적인 패키지 디자인을 실습하는 좋은 경험을 갖게 되는 만큼 정부(교육부)의 지원이 뒤따르기를 희망하고 있다.

올해로 창립 31주년을 맞은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는 임종용 회장의 취임을 계기로 상호 친목과 교류를 통해 “패키지도자”의 사회적 입지가 정착되도록 회원들 스스로가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협회 회원 스스로가 패키지도자 디자이너의 자긍심을 갖기를 바란다”는 임종용 회장.

협회 조직운영의 시스템화를 통해 회원단합을 이끌어 내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그의 포부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

박초혜 기자